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기호학과와 영남학파는 오래 전부터 학파의 지위를 얻어 연구와 진흥이 진행되었다. 불행하게도 호남학은 학파의 지위도 얻지 못했고 연구와 진흥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예를 태우던 상당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100만 원 이상씩을 출연하고 법안까지 조직하여 그 일을 추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필자는 초창기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마침내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전남도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 그 무렵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되자, 나는 전남지사를 찾아 임명되어 호남학 연구와 진흥에 지사의 동의를 얻어내 일이 신속히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광주와 전남에서 활발하게 일이 추진되자, 나는 전라북도 지사를 찾아가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함께 일하기를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약간 동의를 하는 것 같았으나 두 번째 방문

호남학의 연구와 진흥

때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끊었다. 실무자들이 가고 오면서 추진하던 일이 지사의 거절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수년 동안 추진하던 일이 멈추게 되자 그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없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낙망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었다.

호남학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빠진 학문 연구는 반쪽 연구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냥 접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선 후일을 약속하면서 광주와 전남이라도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마침내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는 특수 법인이 설립되었다. 전남도의 유류 공간인 옛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청사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호남학 연구와 진흥의 일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그냥 두고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전라북도가 함께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는 '호남학'이라는 명칭이 어색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전북도지사에게 새로운 분이 취임하였다. 나는 그 일에 마음을 놓지 않고 있던 터여서 새로운 지사가 탄생하자 곧바로 전주에 내려가 당선자를 만나 긴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나침은 아주 근대의 일이고, 남북의 갈라짐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문화와 학살이 발달했으니 '호남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당연히 전라북도가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사 당선자가 흔쾌히 찬성하면서 여러 절차가 따르겠지만, 광주-전남과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에 동참할 의사가 있

다고 답변해 주었다.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되었다.

전라북도도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조례도 통과시켜야 하는 지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사의 결심이 확고한 이상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본다. 호남 성리학의 큰 학자는 전원에서 살았던 일제 이항(李恒) 선생이다. 그분이 빠지고 호남 성리학 이야기가 되겠는가. 호남의 3대 천재라던 조선 후기의 3대 실학자는 여암 신경준, 존재 위백규, 이제 황윤석인데, 여암과 이제는 바로 순창과 고창의 전북 출신이 아닌가. 전북을 빼고 호남 실학이 이야기라도 되겠는가. 조선 유학의 최후의 변화는 동학과 한말 의병운동에서 발산했다. 전북의 동학이 빠지고 호남학이 정립되겠는가. 이제 이런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유학의 발전은 전남-전북이 함께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전라도가 호남이니, 이름도 '호남학 연구진흥원'으로 바꿔 본격적으로 기호학이나 영남학에 대등한 수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수준에 이르러, 의리(義理)를 숭상하여 국난에 몸을 던져 조국을 구해 냈던 호남 정신을 호남 유학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유학이 본래의 사명으로 여겼던 충효의 이념으로 발전해, 임란-병자호란 당시 호남인의 투혼, 동학과 호남 항왜 의병정신이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이르는 호남 학술사와 운동사가 정리되어 전남-전북의 틈새를 막아서 언제나 함께 가고 함께 운동하는 세상을 지켜 가야 한다. 3개 시도 실무자들은 하루빨리 만나 실무적인 합의를 통해 가정 '호남학 연구진흥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그 섬, 낙월도(洛月島)에 다녀온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어쩐지 쓸쓸하기도 하고 낭만이 어려 있기도 한 이름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사람 하나 안 보이는 한적한 해변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수없이 날려 있었던 것. 그것 때문이다. 처음엔 갯벌의 흔한 풍경이겠거니 했다. 갯벌엔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 저 흔적들 역시 그 증거쯤이라고 짐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 그곳은 질척거리는 갯벌이 아니고 맨발로 걸어도 좋을 만한 모래 해변이었다. 남겨진 흔적들 역시 여러 생명체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종의 것처럼 보였다. 모양과 크기는 달랐지만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그것은, 어찌 보면 토끼나 염소들이 싸놓은 '똥' 같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것들로 만들어 놓은 꽃이나 도형 같기도 했다.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무작위로 그려 놓은 것 같기도 않았다. 나름대로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무슨 비밀스러운 문장 같기도 했다.

그 섬의 예술가들

인터넷에서 페루의 나스카 유적을 본 적이 있다. 그 유적은 드넓은 사막 위에 거미나 나무, 삼각형이나 나선형 같은 370여 개의 동식물 모양과 기하학적 도형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술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막에 넓게 퍼진 문양들은 그 크기에 형태가 땅에서는 보기 어렵고, 드넓은 공중에서 내려다보아 드러날 정도라고 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유네스코는 '위대한 수수께끼'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외계인의 흔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혹시 이 해변의 문양들 또한 그런 것일까? 이 한적한 바닷가에 내려와 한나절쯤 종이 놀다 간 것은 아닐까? 그들만의 '낙장'을 벌이고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궁금한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는 하나도 없었다. 나 또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가 된 지 이미 오래, 재킷 손에 흰 스마트폰을 열었다. 깨진 조각 하나라도 압호인 듯 입력하면 제아무리 생각 안 나는 것도 기꺼이 소환해 오지 않던가. 나는 몇 개의 조각을 검색창에 넣었다. 해변, 동굴동굴, 알갱이... 장님 문고리 잡듯 보이는 대로 밀어 넣은 빈약한 단어에도 내가 찾는 것과 흡사한 이미지들이 주르륵 뿔다. 클릭 클릭했다더니 우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새로운 정보들이 매달려 나왔다. 드디어 나는 그 알갱이의 정체가 '염낭개'라고 하는 불과 1센티 남짓한 작은 개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염낭개는 조건대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고 무리 지어 살아가는 개의 일종이다. 썰물 때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습만의 군대처럼 일제히 먹이 활동을 벌인

다. 양 집게다리모 모래를 집어 입 안에 넣은 뒤 머금고 있는 물과 함께 모래를 굴려서 유기물은 삼키고 모래는 뱉어 낸다. 그 양이 하루에 최대 자기 몸무게의 수백 배에 이른다. 요즘들은 눈자루를 자유로이 세웠다 놀렀다 할 수도 있다. 이 눈자루를 잠수함의 잠망경처럼 이용해 구멍 속에서도 밖을 훑어 볼 수 있다. 또 갈색 톤의 보호색을 띠고 있는데, 생김새가 영락없이 모래나 모래무니 같아서 눈에 띄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지경이다.

새롭게 알게 된 염낭개는 해변의 청소부이자 독특한 예술가였다. 그들이 빚어놓은 무수한 모래 알갱이들은 정화의 흔적이며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품이 되었다. 방대한 화폭에는 하루 두 번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다. 달이 차고 달이 기울 듯이 썰물 때면 생겨나고 밀물 들면 무너져도 짓고 또 짓고, 그리고 또 그랬다. 모래인지 무엇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작은 생명체에 불과해도 그 역사(役事)는 놀라운 것이었다. 적어도 내 기억 속의 한 섬은 그 조그만 것들의 숨결로 꽉 차 있거니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세계는 저 먼 나스카 유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신기하고 생생하며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 섬에는 오늘도 수십만 마리의 염낭개가 일제히 '예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앙증맞고 야무지게, 당차고 발랄하게 밀려온 잔해들을 정화하고 있을 것이다. 삼키고 뱉어 내며, 씻어 내어 수놓으며, 말하자면 '똥'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제 몸을 살리고, 제 삶의 터를 살리며, 제 삶의 무니로써 똥 생명을 살려 내고 있을 것이다. 삶으로써 예술을, 예술으로써 삶을 일깨우고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반등

안정적인 반등을 실현했다. 생산 측면에서 지난 6월 연간 수입 2000만 위안 이상의 산업 부가까지 증가율은 동기 대비 3.9% 성장했으며, 수요 측면에서 자동차-가전 등 중점 소비 분야의 회복 조짐이 뚜렷해졌다. 소비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는 지난 5월의 -6.7%에서 3.1%인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다. 올 상반기 중국 여름 작물 생산량은 1억 4739만t에 달했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고 2조 4812억 위안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1.7% 상승했다. 올해 1-5월 중국 신설 시장 주체는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 중 개인 업체 성장률은 3.8%에 달했다.

중국 경제의 매력과 잠재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7월 하순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개최될 제2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이하 중소비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첫 회 참여 기업을 크게 초과했으며, 해외 기업의 전시 면적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확대되었다. 오는 11월 초 개최될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260개의 세계 500대 기업 및 업계 선두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전시 면적은 이미 76%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제 사회의 믿음은 변함없이 있다. 올 1-5월 중국 외자유치 규모는 87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올 1-4월 신규 계약한 1억 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는 185개에 달

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외국 기업과 1.5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약한 셈이다. 지난 5월 주중미국상공회의소(AmCham China)에서 발표한 백서에 의하면, 많은 인터뷰어가 글로벌 승자가 되려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변증법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단기적이고, 외재적이다. 반면 중국 경제의 강인함과 잠재력은 장기적이고 내재적이다. 중국이 축적한 물질적 기반과 초대 규모 시장이라는 장점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발전의 기본 바탕과 내재적 동력은 변함이 없다. 소비와 생산의 회복과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반등하여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중한 양국 모두 시장 주체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시장 활력을 자극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30년 동안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교역액은 50여 배 성장하여, 이익이 융합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큰 잠재력을 지닌 협력 동반자가 되었다.

앞으로 양국이 수교 3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 주길 바란다.

社說

53일 '지각 원구성' 국회, 민생 살리기 집중해야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 기입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과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돼 거의 두 달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윤영·법제사법·행정안전(행안위) 등 일곱 개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에는 정부·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문화체육관광 등 열한 개 위원장 자리를 배정했다.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는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개혁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인사 난맥과 탈북 여민 복송, 법안세 인하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경제와 민생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커졌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국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납품대가 연동제, 화물 안전운행제 일몰 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가 엇그제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기로 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운영에서부터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고금리에 다시 판치는 불법 사금융 엄단을

올해 상반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법 채권 추심과 이자 제한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뜰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노린 범죄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 범죄'로 모두 53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사금융 28명, 유사수신·다단계 23명, 불공정 거래 2명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범죄와 관련해 모두 2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보면 검정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피해를 당한 시민들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 A씨는 2017년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21년 7월까지 매월 이자만 250만 원씩 갚아야만 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은 25%로 제한됐지만, A씨는 연 60%의 이자를 감당해

야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2019년 5월부터 8개월간 44만 원을 빌리고 이자뿐만 아니라 모두 2650만 원을 갚았다. 무려 10만%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부담한 것이다.

이렇듯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금리 인상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이 표적이 되고, 살인적 이자와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까지 뒤따라 치명적이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가 느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서민을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이러한 금융 범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금융 소비자들도 대출 상담을 받을 때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 등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간은 오래 전부터 오만한 목소리로 자연의 정복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그 자랑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이 힘이 지대로 담금질되지 않고 무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정복의 대가가 인류의 파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최후의 바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이자 '침묵의 봄'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의 경고다. 그는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 (작가정신)

기후역삼

라는 책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사실 인간은 옛

47도까지 상승한 포르투갈에서는 잇따른 산불로 300k㎡가량이 잿터미로 변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도쿄에서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온은 우리나라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평균 기온은 역대 3위였으며 폭염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도 세 번째로 높은 속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온은 머잖은 21세기 말이면 최대 6.3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올해 장마도 예년과 달리 폭우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간은 마치 자연을 우리 것인양 개발과 파괴를 일삼아왔다. 미국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랠프 월도 에머슨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숭배의 교훈을 배우는 이다"라고 했다. 식량 위기, 기후 위기는 종래는 인간의 생존 위기로 귀결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자연을 향한 이 거대한 탐욕과 무지 그리고 '오만의 수레바퀴'를 멈춰야 한다.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skypark@

기고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

중국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한국 친구 여러분, 올 연초부터 복잡하고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요인의 영향에 적극 대응해 2분기 플러스 성장을 이루어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으며, 이 중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중국이 이러한 경제 실적을 이루어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세 가지 압력에 직면하는 동시에 각종 약제가 잇따라 겹치면서 많은 시장 주체들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신발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방역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여 거시 경제 전반을 안정시켰다. 5월 주요 경제 지표의 하락 폭이 좁혀졌고, 6월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